

믿음의 본질

The Object and Acts of Justifying Faith

주교재: 토마스 굿윈, <믿음의 본질 1, 2>(부흥과개혁사)

■ 제 1 장 믿음의 원천(230201)

1. 토마스 굿윈은 누구인가?

- 1.1. 리차드 십스, 존 오웬과 함께 청교도 3 대 거목 중 한 사람
- 1.2. 출생과 어린시절
 - 1.2.1. 영국 노포그에서 경건한 부부 리처드와 캐서린 슬하에서 태어남(1600 년 10 월 5 일)
 - 1.2.2. 여섯 살 때 ()의 체험과 자신의 죄 때문에 통곡
 - 1.2.3. "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기쁨의 빛들을" 체험
- 1.3. 격동의 성장기
 - 1.3.1. ()세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크리스트 칼리지에 입학
 - 1.3.2.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성찬 참여를 거절당함
 - 1.3.3. 그후 설교, 성경읽기, 독서 및 기도를 중단
 - 1.3.4. 대중적인 설교자가 되기 위해 수사학과 아르미니안주의에 동조
- 1.4. 진정한 회심
 - 1.4.1. 눅 19:41-42 을 본문으로 하는 장례식 설교를 듣고 ()에 대한 심원한 각성
 - 1.4.2. 하나님께서 그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게 하심
 - 1.4.3. 이때 겔 16:4-6 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됨
 - 1.4.4. "살아나라! 내가 네게 말하노니, 너는 살아나라!" → 하나님 ()의 음성
- 1.5. 참된 설교자
 - 1.5.1. 설교 스타일의 변화
 - A. 이 후로 설교자에게 주의를 끄는 세련된 설교 스타일을 버림
 - B.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청교도의 "간명한 설교 스타일"을 수용(고전 2:4-5)
 - C. 진지하고, 경험적이며, 목회적인 설교를 수행
 - 1.5.2. ()의 본질에 대한 추구
 - A. 1620-27 년까지 그는 개인적인 믿음의 확신을 추구
 - B. "나는 오직 내 안에서 은혜의 표지를 찾으며 수년 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있었다.
내가 다시 주의를 그분께 돌려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에 대한 신앙으로 살기까지 7 년의 세월이 걸렸다."
- 1.6. 심오한 신학자
 - 1.6.1.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구성원; 많은 강의와 저술활동
 - 1.6.2. 옥스퍼드 맥달린 칼리지의 학장 역임
 - 1.6.3. 아내와 네 자녀 중 세 명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됨
 - 1.6.3 찰스 2 세의 핍박과 역병에도 불구하고 런던의 회중에게 설교함

1.7. 고통의 말년

1.7.1. 탁월한 신자, 유능한 설교자, 따뜻한 목사, 심원한 저술가

1.7.2. 임종의 자리: “일체의 방해가 없는 하나님과의 충만하고 온전한 교통을 누리게 될 것을 기뻐함!”

1.7.3. 묘비명: “성경에 박식했고, 정통적이며, 복음의 신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.
고통받는 양심을 위로하고 달랠 수 있으며, 신학적 오류를 격퇴하는 참된 목사!”

2. 믿음의 대상

2.1.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(요 6:29)

2.1.1. 그러므로 사탄의 방해가 가장 심한 영역

2.1.2. 사탄의 목표는 ()의 파선(딤후 1:19)

2.1.3. 성도의 신앙목표: 믿음의 ()

A.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(롬 10:17) → 하나님의 약속이 불러 일으키는 영적인 미덕

B. 믿음을 자라가게 해야 하는 것은 성도의 책임(살전 3:10; 마 6:30; 막 9:24)

2.2. 영적 자양분을 흡수함

2.2.1. 믿음의 대상은 복음을 통해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(마 16:16)

A. 하나님의 아들: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 →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

B. 그리스도: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신 구속의 사역

2.2.2. 구속의 결과 우리가 죄사함을 받음

2.2.3. 구속 사역의 신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()

2.3.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 담긴 믿음(시 130:1-8)

2.3.1. 죄악에 대한 깊은 각성과 절망적인 상황(1-3절)

2.3.2.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잠잠히 바라볼 뿐(5-6절)!

2.3.3. 하나님의 계시: 하나님의 () → 풍성한 () → 죄악을 ()하심(7-8절)

2.3.4.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()를 빨아들일 때, 믿음은 더욱 성장하게 됨(벧전 2:2; 시 132:2).